



송동면,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사업 추진

남원시 송동면은 지난 11일 오후 6시 반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8세대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사업으로 찾아가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제결혼 증가로 늘어난 다문화가족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되었으며, 국가별 이주여성 소개,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가족을 위한 천연바디로션 만들기, 저녁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선재 송동면장은 "이주여성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청소년정책자문단, 범죄취약지역 순찰활동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1일 도룡동 및 하정동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 순찰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청소년정책자문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해환경감시단 등 30여명이 참여해, 청소년정책자문단이 제안한 정책내용의 아간시간대 청소년들이 주로 밀집하는 지역에서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공인, PC방, 편의점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와 단속활동을 펼쳤다.

또한, 정책자문단원들이 자체 제작한 금연홍보스티커를 노래방 및 PC방 흡연구역에 부착하고 아간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귀가를 유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3회 김제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보육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3회 김제시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보육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리이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행사장에는 보육인 60여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참여 희망 보육교직원들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참여를 병행해 진행됐다.

보육현장 이야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아동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애정으로 보육에 힘쓴 우수 보육교직원 18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보육인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그동안 업무로 인해 다치지 힘들었던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안전하고 행복한 익산 만들기

전북소방본부-익산소방서, 119 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

전북소방본부·익산소방서는 송하진 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김정수 도의원,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 전미희 익산소방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익산시 옹포면 맹산리 대평마을에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은 지역주민의 행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을 선정해 다양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로 소방관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화재안전기금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하였으며, 홍영근 소방본부장이 직접 마을 찾아 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또, 행사 시작 전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는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초건강검진, 이·미용, 손 마사지, 아동복지 빨래봉사 등 봉사활동을 펼친 후 각 가정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전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



급 및 설치 ▲가정화재 안전점검 및 전기·가스 안전 점검 ▲쌀·화장지 등 기초생필품 기증 ▲마을회관 내 구급함 설치 등이 진행됐다.

끝으로 홍영근 본부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준 소방대원 및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안전을 위해 안전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무주읍 이장단 대상, 3선 치안 활동 전개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 주계파출소에서는 최근 무주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에 참석, 상호 대화 형식의 소통 방법으로 3선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변화해가는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농기계 운행 및 보행시 주의 사항 등의 사고 예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당부했고, 이장단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한 당부사항이라 피부로 와닿는거 같으며 마을로 돌아가 내용을 빠짐없이 그대로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성수면, 비대면 합동소방훈련 실시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기호)은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마련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훈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원 인력을 최소화하고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간접체험훈련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화재 발생 시 화재 상황전파, 피난요령, 화재 시 환자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후송, 화재진압 후 잔물 정리와 복구 등 응급상황에 따른 자체 대처능력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요령을 숙지했다.

지위소방대장 이기호 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훈련은 못했지만 현장감 있는 영상 시청을 통해 직원들의 초기 대처능력 향상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성수면, 응급상황 신속대처 심폐소생술 교육

임실군 성수면은 지난 11일 면사무소 직원, 산불감시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국민응급처치교육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과 질병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 등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행위의 중요성을 전하고, 초기 대응능력과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산불감시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과 요령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응급상황 발견 시 4분의 기적을 나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옥정호 광역상수원 27명 지킴이, 깨끗한 옥정호 조성 앞장

임실군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가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올해 활동을 마쳤다.

12일 군에 따르면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가 지난 4월부터 7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다고 알렸다.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총 23명으로 지난 7개월간 옥정호에서 불법 어로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방치 쓰레기 수거 및 수변 정화 활동 등을 통해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앞장섰다.

군은 해마다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구성, 운영한 결과 불법 낚시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 등으로 떠내려온 수변 쓰레기 70톤을 수거해 옥정호 수질 보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군은 지킴이들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광역상수원의 수질관리 및 수질 보전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킴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최나현 환경보호과장은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해마다 지속해서 실시해 상수원에 대한 오염행위 상시 감시 및 계도, 정화 활동을 통한 수질 보전 및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나현 환경보호과장은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해마다 지속해서 실시해 상수원에 대한 오염행위 상시 감시 및 계도, 정화 활동을 통한 수질 보전 및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오수지구대, 산 도박 우려지역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

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山)도박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산도박 우려 임도(林道) 구간 10개소를 선정해 플래카드 게시를 통한 예방과 정기적 순찰을 통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오수지구대는 오수면과 삼계면 일대에 걸쳐 다중이 모여 도박을 하기 용이한 곳과 산도박을 한 흔적 등이 있는 곳에 대하여 가시적 순찰 활동은 물론 산림경찰과 산불감시원 등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순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인영 서장은 산도박 예방 단속활동에 있어 지역 주민도 적극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임실 만



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